

## 1.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하시거나  
여기 QR코드를 찍으셔서 바로 등록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필수 성경공부인 '길찾수(길을 찾아 만난 예수)' 성경공부를 이수하셔야 합니다.



## 2. 아침묵상

매 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6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업로드 됩니다.  
아침묵상을 부담으로 여기지 마시고 내 경건생활의 시작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하루 30분 하나님 앞에 시간을 따로 떼시고 기도와 말씀  
생활을 충실하게 하심으로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소원  
합니다.

## 3. 가정주일 바베큐 파티

5월 14(주일)은 가정주일로 지킵니다. 매년 5월 마지막 주일에 야외예배를 갖었습  
니다만 올해부터는 교회에서 바베큐 파티를 갖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안내를 다음  
주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난 주 (4/23) 헌금 통계

선교구제 헌금란이 없는 이유는 매주 전체 헌금에서 5%를 선교구제비로 구별하기 때문입니다.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재정 보고서를 매월 첫째 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총 액

\$748.93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다함께

\*찬양과경배 Songs of Praise

다함께

기도 Prayer

윤하나

\*주님의기도 Lord's Prayer

다함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고후 1:3-11

다함께

말씀선포 Sermon

온갖 위로를

유형선

\*찬양 Praise

다함께

\*봉헌&축도 Offering&Benediction

유형선

\*가 있는 순서에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현금은 예배당 입구에 들어오면서 현금함에 넣어주세요.

### 주일대표기도

5월 7일                      5월 14일(가정주일)  
김종대                      김주연

### 예배시간안내

주일예배                      오후 2시  
아침묵상                      (화-금) 매일 오전 6시 (Youtube)

### 공동기도제목

1. 말씀 안에서 - 부활 신앙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2. 나라와 민족 - 민족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3. 교회와 선교 - 교회가 십자가 앞에 무릎꿇고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하소서

## 부끄럽습니다

한국교회는 세계 어느 교회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유례없는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70년대 이후 교회는 엄청난 속도로 그 수가 증가했고, 세계에서 제일 큰 대형교회들이 한국교회의 자랑이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열정적인 목회자들의 설교, 뜨거운 내세지향적 종말론 신앙과 뜨거운 선교의 열정은 어느 세계 교회들도 이뤄낸 적이 없는 한국교회에만 주신 축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자랑거리가 과연 성경적인 부흥인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 언제나 회개를 동반했으며 그 회개는 삶의 변화로써 열매를 맺었지 단지 숫자적인 증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의 신앙은 지극히 추상화되거나 관념화되어서 현실 세계 속에서는 전혀 빛을 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식에 대한 편협성과 유약성 때문에 민족 앞에 선지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자로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고사하고 항상 대형 사건 사고의 중심에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존재한다는 슬픈 현실은 오늘도 눈물로 가슴을 치게 만듭니다.

이제는 연일 뉴스를 장식하는 한 정신 나간 목사의 정치적 발언과 그가 이끄는 교회의 집단 이기주의에 대한 뉴스를 접할 때마다 얼굴을 들고 다니기가 부끄러운 정도를 넘어서서 어디 나가 당당하게 목사라는 직분을 말하기도 부끄러워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다 하다 예능 프로그램에 목사가 나와 스님과 신부님과 종교통합을 웃음소재로 삼고, 이단 사이버들은 보란 듯이 더욱 활개를 쳐서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정도의 영적 마비 시대, 영적 무기력, 영적 상실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과연 이것이 신앙입니까? 이것이 믿는 것입니까?

이 짧은 지면에 하고 싶은 말을 다 담을 수는 없지만, 이 글을 쓰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When they go low, we go high”

“저들은 저급하게 가도, 우리는 품위 있게 갑시다”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롬2:24)